

새 시대 세상에 숨긴 보화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네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투자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왔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왔든지, 주님이 직접 이끌어 주셔서 왔든지,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왔든지, 혹은 자기가 너무 좋아서 왔든지, 지금 이 시간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왕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수요일 저녁은 피곤함이 아주 극치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수요일 오후 3시 이후가 일주일 간 가장 늙어 보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5년 정도는 늙어 보인대요. 똑씩 늙어 보인대요. 아주 똑씩. 그 정도로 수요일이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왕이면 이 시간을 오직 우리의 마음, 온 마음, 온 생각을 완전하게 주님께 집중한다면 더 값진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더 간절한 마음,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자, 몸과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되 이번 주 말씀처럼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 아주 진실한 생각으로 투자하면 순간 내가 지금 처한 이 위치, 이 차원,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생명의 귀한 말씀을 받고, 인생 문제의 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큰 힘이 오고, 에너지가 오는 큰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 남짓 되는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아직까지 넣은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려거든, 언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한 시간 정도의 시간 주님께 응답을 받고 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 여러 가지의 모든 생각들을 완전하게 다 내려 놓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 힘을 받기 위해, 능력을 받기 위해, 에너지를 받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마음 비우기, 마음 비우기입니다. 모든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 마음 비우기입니다. 자, 이게 먼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

늘 말씀을 시작해도 좋겠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한번 더 하기 위해서 전세계가 오늘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찬송가 516장 오랜 만에 해 볼게요. 오랜 만에 합심해서 크게 손뼉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옳은 길을 따르자 .정말 옳은 길을 따르자.’ 내 생각을 다 비우고, 주님의 충만한 성령과 마음을 채우자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자, 수요일에 귀한 날 ‘오. 왔도다. 왔도다.’ 오늘 성자 주님의 귀한 날, 그리고 사랑의 날, 아주 기쁨의 날, 생명의 기운과 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준비되신 줄 알구요.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교는 소고기 중에서 따지면 안심설교라고 했습니다. 소고기 중에서도 안심,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비싸고 맛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고기 안심과 같은 맛있는 수요일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안심설교를 넣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구요.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소고기두요. 꼭꼭 씹어야 맛이죠.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맛입니다. 맛있는 설교,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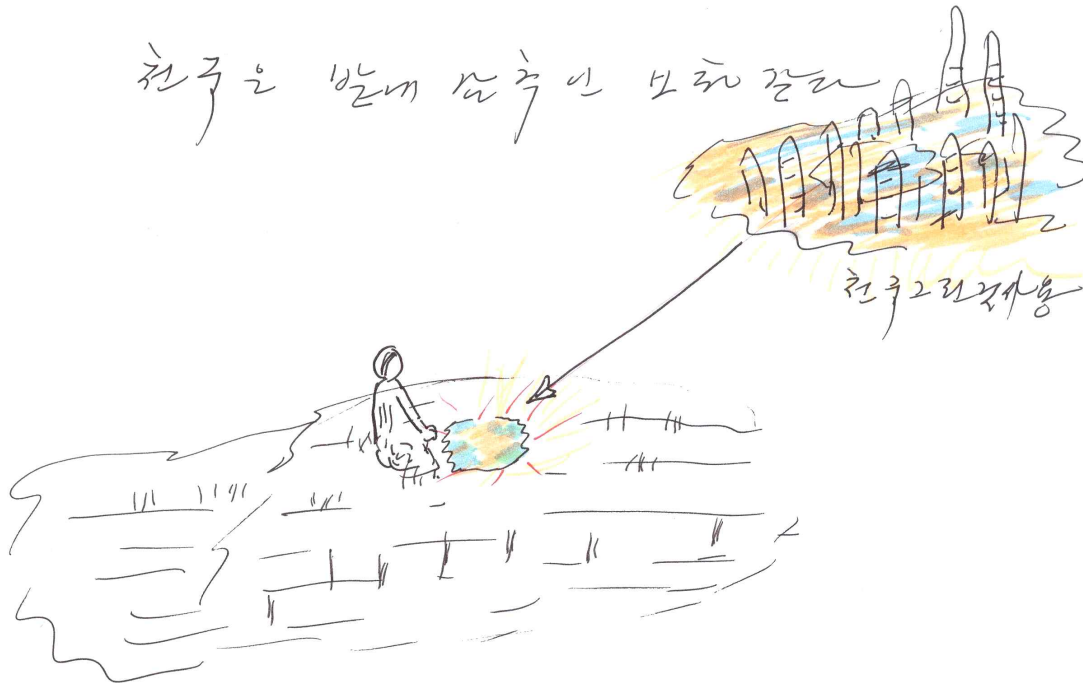
이번 주 주일말씀에 ‘투자해야 성공한다. 투자해야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 투자해야 표적이 일어난다. 자기 마음 투자, 생각 투자, 몸 투자, 시간 투자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것도 얻어지지 않는다. 영적으로 투자해야 영원한 것을 얻는다. 자기 육신에게 투자하여라. 왜? 그 육신을 가지고 흔적 세계와 영적 세계와 성자에게 투자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모두 생각날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얼마나 행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행하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투자라는 말씀 오늘 이 투자라는 말씀에 따라 얼마나 행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고 얻는 것이 좌우되니까, 여러분 충만하게 아주 많이 행하여서 많은 것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선생같이, 또 선생이 시켜서 나와 같이 행하는 자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시대 세상에 숨긴 보화입니다. 새 시대 세상에 숨긴 보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서 역시 투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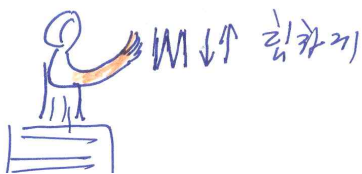
오늘도 ‘투자’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면서, 모두 뜨겁게 성령의 감동을 일으켜 주어 행하게 해 주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비우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일으켜 주어서 여러분을 행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얻을 것을 얻어 육도 영도 보람되게 살게 하고 영원한 축복을 주려고 하니, 생명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다짐하면서 **결심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마음·정신·생각과 몸을 다 몰두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투자해야 어마어마한 보화가 묻힌 밭을 살 수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고도 자기 소유를 아깝게 생각하면 못 삽니다.



(기본 제스처 힘차게! : 메시아를 발견하고도 전심으로 안 하는 자는 미련한 자임을 알고 심정 타서 외치는 제스처를 해야 된다. - 제스처를 힘차게 안 하면 앉아서 오줌 싸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싫다.) <끝>

오늘 말씀의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먼저 보화를 발견해야 되겠죠. 보화를 발견해놓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 절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투자해야 되요. 보화를 발견했으면 투자해서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도 투자할 것은 정당하게 투자해야 살 것을 사게 됩니다. 시내버스나 택시를 한 번 타더라도 요금을 투자해야 목적지로 가는 것을 얻게 됩니다. 나는 시내버스 택시 안 타는데요. 걸어서 왔습니까? 걷는 것을 투자해야 오늘 여기 목적지까지 오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적게 투자하면 적게 얻고, 크게 투자하면 크게 얻습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 **영원히 사는 이 천국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인생’이라는 자기 소유를 다 투자해야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세계인 ‘천국’이라는 보화를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투자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요? 이번 주 말씀 생각나시죠? 앞으로 “저는 주님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너 손 내밀어봐. 빈 손으로 맨몸과 맨손을 가지고서라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간만 투자한다면 영원한 세계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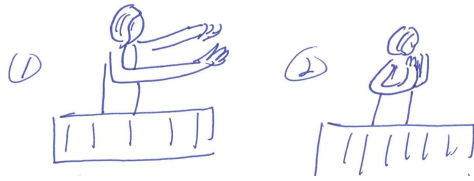
<천국>은 보화의 세계입니다. 보화를 확대시킨 세계입니다. **온통 보화 천지라는 소리죠.** 금과 다이아몬드와 각종 보석의 세계입니다. 고로 신약 때 성자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신약시대 때 실제로 보이는 보화는 ‘구세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천국’이 보화였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한 자들만 구세주라는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국보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투자한 자들은 구세주라는 보화를 자기 것으로 조금 밖에 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조금만 알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밭으로 본다면, 그 속에 묻힌 보화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본체입니다. **믿습니까?** 그 보화를 캐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다(요 5:24).”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를 보내신 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였습니다. **고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이 밭에서 하나님과 성자라는 이 보화를 캐냈어야 했습니다.** 보이는 보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보화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펴오시면서 천국세계를 사명자들 몇 명을 보여준 일이 없으세요. 그 신의 모습을 보여준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보이는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보화를 발견하게 해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발견하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화를 가지고 천국을 발견하게 해주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성자 주님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펴 오는 동안... 구세주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를 메시아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진정 믿고 산 자들은 그 시대 급의 영원한 보화를 캐내어 자기 것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새 역사의 보화인 <성자>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자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자가 보낸 자>를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종교의 중심으로 행하시는 **중심에 핵심을 두고 행하시는 이 <섭리역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시대 보화를 발견했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야 됩니다.**



(‘발견했으면’ : 기본 제스처 하다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야 된다.’ 할 때, 양손을 자기 몸 앞으로 확 당긴다.)

이렇게 시대 보화를 발견했으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것으로 사야만 합니다. 시대 보화를 어떻게 발견할까? 시대보화를 발견하려면 먼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해당되는 역사를 펴고 이 시대 해당되는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대망(大望)으로 기다린 재림의 시대, 곧 휴거의 역사입니다. (기본 제스처 하다가 ‘휴거의 역사’ 할 때, 두 손을 높이 올린다.)

왜 이렇게 할까요? 차원이 높아졌거든요. 우리의 마음 정신 생각이 차원이 높아지는 휴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이고, 주님과 만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는 2천년 동안 대망으로 기다렸던 재림의 시대, 휴거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먼저 이 휴거의 역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신약역사가 끝났습니다. 때에 따라 진행이 되었습니다. 새 역사 성약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1월 27일 주일은 끝나구요. 벌써 1월 30일 수요일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신약역사가 때에 따라 갔으니 성약역사 새 시대가 때에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성자 주께서 초림 때 이스라엘의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오셨듯이,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다시 새 역사를 펴러 오셔야 됩니다.

땅의 인간들 자체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 수 없습니다. 땅에 사람들만으로는 절대 역사를 펼 수 없습니다. 하늘의 삼위일체 중에서 지상의 구원을 총 담당하시는 절대 신 성자가 오셔야 됩니다. 그가 오셔야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차원이 높아지게 됩니다. 성자가 신랑으로 오셔서 그냥 오셔서 역사를 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예비해 놓고 기른 자를 택하여 그를 신부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시대 재림의 뜻을 펴 나가십니다. 바로 신부의 뜻을 펴 나가십니다.

신약 예수님 때는 성자가 초림의 뜻을 펴러 오셨습니다. 이 때는 재림 역사를 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초림 역사, 곧 아들 구원 역사를 펴러 오셨습니다. 재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나온 말입니다. 다시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신약역사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재림역사가 아니라 초림역사입니다. 곧 초림역사, 아들급의 구원 역사를 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말씀도 초림의 말씀이었으며, 아들급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신부에 대한 예언은 되어 있고, 신랑에 대한 예언은 되어 있지만 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맞고 신부된 자로서 맞는 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왜요? 구약 때도 예언만 해놨지, 실제로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오 오셨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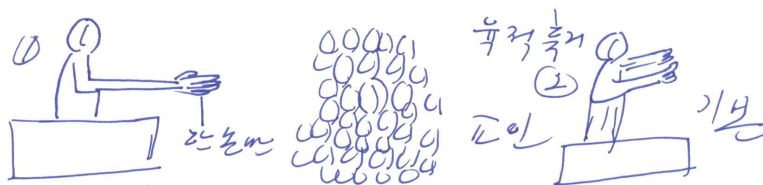
그 말씀을 들어보고 알았습니다. 그럼 똑같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모든 예언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시대가 왔을 때 새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성자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성자가 다시 오셔서 이 시대에 택한 자를 통해서 재림 신부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재림역사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떤 목적이요? 재림역사의 목적, 재림역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육과 영을 신부로 변화시키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육과 영을 신부로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성자께서는 신랑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육과 영을 신부로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자가 택한 자는 성자 앞에 첫 번째 신부로 부활된 자로서, 인간의 육과 영을 신부로 변화시키는 새 시대 말씀을 전해 주면서 성자를 나타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까?

이 ‘말씀’은 창조력이 있어서, 그 말씀 따라 그대로 변화되게 합니다. 고로 이 시대 재림의 신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의 육과 영을 지금 신부로 만들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조력이 있습니다. 새시대 이 세상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창조력이 생겨서 이 시대 보화를 발견하고 투자하는 자는 보화를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누가 뭐라 해도 재림시대입니다. 사람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역사가 맞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재림 시대, 신부시대입니다.

고로 성자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부가 예비하여 신랑을 맞는 것이 ‘이 시대 휴거’입니다. 신부가 예비해서 신랑을 맞는 것이 이 시대 휴거입니다. 신부가 예비해서 신랑을 맞는 것이 이 시대 휴거입니다. 우리의 육이 땅에서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듣고 성자를 신랑으로 맞으면, 땅에서 <육적 휴거>를 이룬 것입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육적휴거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영을 만들어 성자 본체의 영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영으로 성자 본체를 맞으면 <영적 휴거>를 이루어 영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시대말씀의 핵심이죠.



(<육적 휴거> 설명할 때 : ‘땅에서..’ 할 때 한 손으로 기본 제스처 하다가
‘육적 휴거’가 나오면, 두 손으로 기본 제스처 한다.)



(<영적 휴거> 설명할 때 : ‘하늘에서..’ 할 때 한 손을 하늘 높이 들다가

‘영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할 때, 두 손을 하늘 높이 든다.)

이 시대의 가정·민족·세계의 형태와 옛날 2000년 전의 가정·민족·세계의 형태가 **다릅니다. 형태가 달라요.**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문화, 모든 제도들도 구시대 옛날과 현재는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라.** <아들 시대>와 <신부 시대>는 ‘구원의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형제와 애인은 사랑의 차원이 다르듯이, <아들 시대>와 <신부 시대>는 ‘구원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 시대 신랑 되신 성자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은, 신약 때 성자의 초림으로 이룬 천국과는 위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제도도 다르고, 하나님과 성자와의 관계도 전혀 **다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우리 섭리역사에 와서 우리 섭리사 교회에 와서 어떤 말을 하나면 “어머. 너무 달라요.”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묻습니다. “너무 달라요.” 제대로 성공, 성공. “똑같던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랑 똑같던데요. 말씀도 비슷한 것 같고 분위기도 비슷한 것 같고.” 실패. 맞습니까?

옛날에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제도가 다 달랐어요. 하는 말까지 달라진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말도 달라지고, 제도도 달라지고, 하는 행동까지 달라졌어요.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 마음으로 하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달라요. **다릅니다.** 구시대와 새시대는 **다릅니다.** 그와 같이 구시대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새시대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천국의 위치, 환경, 제도, 하나님과 성자와의 관계도 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천국>이라도 구약 천국성 다르고, 신약 천국성 다르고, 성약 천국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이와 같이 구약 - 신약 - 성약은 시대에 따라 ‘땅의 구원자’도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동일합니다. 왜 땅의 구원자가 시대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느냐. 육신이 죽었거든요. 그 죽은 육신을 다시 살려서 구원자로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리에 따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식에 전혀 어긋남 없이 지식의 하나님이신 고로 온전하게 행하십니다. 죽은 옛날의 땅의 구원자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대마다 그에 해당되는 자를 댓 뽑아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 이 시대 발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화면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겠습니다.) **<영상2>**

<섭리역사>가 보화가 묻힌 발입니다. <이 시대 성약 천국>이 발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시대

에 성자가 그 육으로 쓰면서 사람들의 육을 신부로 휴거시키고, 그 영을 신부로 예비시켜 성자를 맞게 해 주는 자>가 발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와 일체 되어 신약의 예언대로 다시 오신 성자>가 이 시대 발에 감추인 영원한 보화입니다. <끝>



먼저는 발을 발견해야 되겠죠. 성리역사라는 이 발 안에 이 시대 천국급의 구원과 천국이 들어 있구요. 그리고 성자 그리고 그가 보낸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역사를 발견하신 여러분, 이 역사까지 왔는데 천국을 얻지 못 하고, 성자를 발견하지 못 하고, 그 본체와 일체되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세 가지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보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하게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이 비밀을 알려 주었으니 더욱 깨닫고, 자기 인생과 젊음의 소유를 다 팔아 투자하여 이 시대 보화인 <천국>을 사고, <성자>를 사고, <그 육이 되는 본체>를 사야 되겠습니다. 보화를 봤으니 발을 사도 전혀 손해가 안 갑니다. (기본 제스처 : 양손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한다.)

선생도 산에서 기도할 때 성자 본체가 오신 것을 확인하고는 주님께 본체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본체가 땅에 재림해서 왔다.” 하셨습니다. 성자 본체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 배웠습니다. 먼저 육이 땅에서 <육적 휴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요? 땅의 구원주인 나사렛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내 젊음과 청춘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신의 소유를 다 투자해서 신랑 되신 성자를 샀습니다.

어떻게요? 그때 선생은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시니, 절대 그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성자가 보내신 구세주를 믿으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능자는 안 보이니, 항상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의 그 모습을 쓰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성자 본체과 본체에 대해 확실히 알고부터는, 이 시대에 성자가 쓰시는 본체의 몸을 쓰고 나타나셨습니다. **왜 사람마다 보이시는 것이 다를까?** 성자 주님은 나타나시는데 왜 보이시는 것이 다를까? **사람마다.** 성자는 저마다 마음에 인식한 대로 나타나십니다. 이 시대에 새로 보낸 자, 곧 이 시대에

성자의 육으로 쓰는 자를 깨달을 때까지는 기존의 인식관이 있으니, 성자 주님은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을 쓰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다가 새 시대를 알면, 성자는 시대 사명자의 육을 쓰고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역사, 새말씀을 들은 자들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은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 그가 주시는 은혜, 그가 주시는 사랑, 그가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제도, 말씀, 차원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의 몸으로 쓰는 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를 통해 자기의 말을 전하고 자기의 심정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무나? 내가 제일 싫어하고, 내가 제일 인정 안 하는 저 사람을 택하겠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나를 매일 생각도 하지 않아. “너 이리 와봐. 내 말을 가서 전해 주겠니?” “내가 왜 니 말을 전해주니?” 이러지 않겠어요?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별로 친하지 않아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뒤에 가서 다른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자기와 심정이 잘 맞고 자기 마음과 생각과 일체 된 친구나 형제나 애인을 쓰고 자기 말을 나타내고, 자기 심정을 나타내고, 자기 모습을 나타냅니다. 성자도 그러하십니다.

★ 전능하신 성자가 이 시대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육으로 쓰는 자가 세상에서 최고 귀한 보화입니다. (오른손 엄지를 든다.) 세상에서는 최고 귀한 보화입니다. 그 자체로 귀한 것, 성자를 발견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일체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절대 팔려오지 않습니다. 집을 준다고 해도 팔려오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 진실한 역사를 깨달은 자들만 그에게만 시대를 주고 시대말씀을 더 주고 주님을 발견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 발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듯이, 이 시대 발에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자기의 영원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면, 그냥 순간 없어지고 말 것을 얻으려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절대 남아지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정신·생각과 시간을 ‘시대 말씀을 듣는 데 투자’하고, ‘성자 주께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매우 잘 하셨습니다.

★ ‘천국’은 쉽게 말하면 바로 성자이십니다. 그 분체입니다. 성자와 그 분체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나누면 달라요. 한 몸인데 달라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존재라고 하는 게 아니예요. 모든 생각, 마음, 모든 것이 일체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그런데 나누면 전능하신 성자와 그 육으로 쓰이는 사람입니다. 성자와 그 분체라는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자기 인생과 마음·정신·생각과 몸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깝게 생각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 자기 육과 영을 신부로 변화시키는 휴거의 보화와 신부 시대 구원의 보화를 위해서 자기 인생과 마음·정신·생각과 몸과 시간을 성자 주님 앞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이 시대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발견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 분체를 발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딱 한 가지, 이 착각을 깨야 해요. 내가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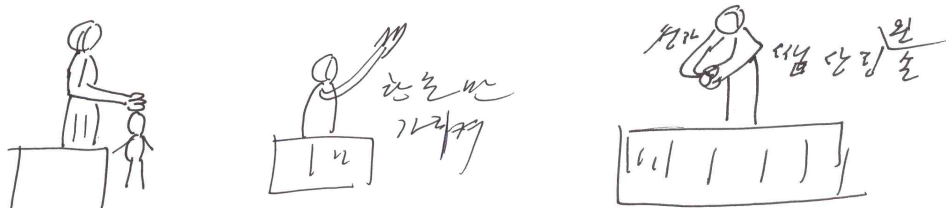
있는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진 모든 시간들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이 착각, 이 관념을 깨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들, 여러분의 젊음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 ‘자기 소유’는 그냥 놔두면 시간같이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어제 두시간을 저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 저금할 수 있어요? 저금 못 해서 문제이잖아요. 절대 시간은 놔두면 흘러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소유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 가기 때문에 투자하고 써야 됩니다. 절대 젊음’도 그냥 놔두면 늙고 병들어 봄의 눈같이, 꽃같이 사라져 버리니, 투자하고 써야 됩니다. 늦기 전에 투자입니다. (기본 제스처 한 손으로)

섭리사를 한 번 보세요. 그냥 산 자들은 인생만 늙었습니다. 발을 발견했으면 그 발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사야 되는데 못 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발에서 노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인생도 늙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늙기 전에 전심으로 주의 일을 행한 자들은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와 젊음을 투자하여 발에 감추인 보화를 샀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자기 인생도, 물질도, 마음도, 몸도, 시간도 시대가 가면서 사라집니다. 고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는 발을 사서 그 속에 묻힌 ‘성자 보화, 분체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생은 ‘성자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 10대부터 내 인생의 시간과 청춘을 아무에게도 안 주고 오직 하늘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보화를 발견한 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오직 성자 주만 사랑하여 나를 주의 신부로 만들어 성자를 신랑으로 취했습니다. 믿습니까? 빈손 맨몸이었지만, 모든 청춘과 인생, 사랑, 정성을 다 투자해서 신부로 만들어서 사랑으로 취한 것입니다.



(‘10대’ : 한 손으로 키가 작고 어린 것 표현)

(‘오직 하늘을 위해’ : 오른손을 하늘 높이 든다.)

(‘성자 주만 사랑하여 신부로 만들어 성자를 신랑으로 취했다.’

: 성자는 오른손, 선생은 왼손

왼손 주먹을 펴서 오른손 주먹을 잡으면서 취한 것을 표현한다.)

모두 선생같이 주의 신부가 되어 성자를 자기 신랑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그러려고 이 재림 역사의 목적을 이루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꼭 결심하고 그와 같이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과 영을 신부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성자를 사랑으로 취하지 못한다면 그냥 그 보화를 구경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면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품 속에 넣어야 되요.

이제 성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더 감동적인 깊은 말씀을 전해주시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새롭게 하면서 주님을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성자의 말씀>

지금까지 내 분체를 통해 증거하며 말했으니, 이제 나 성자가 더욱 너희 마음이 감동되어 행하도록 말할 테니 더욱 잘 들어라. 올해는 ‘말씀과 전도의 해’다. 시대 말씀을 듣고 완전히 알고, 그 말씀을 전해 줘야 **너희가** 희망을 얻고 **많은** 생명들이 전도된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얼마나 천운을 탄 자냐. 그 어떤 것을 얻은 자보다 천운을 탄 자다.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얼마나 천운을 탄 자냐! 그 어떤 것을 얻은 자보다 천운을 탄 자다. 인운을 타서 복권에 당첨됐어도 그렇게 기쁜데, 천운을 타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 시대 천국을 이루는 보화, 휴거를 이루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자는 얼마나 기쁘겠느냐.

귀한 것을 알지 못 하면 뺏긴다. 귀한 것을 알지 못 하면 뺏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부르신 신부로서 완성된 사람인가? 무엇으로 확인하겠습니까? 이 시대 천국을 이루는 보화, 휴거를 이루는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누구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자, 성자 본체가 오셨을 때 100% 하늘로 휴거될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성자 본체와 그 분체와 완전하게 일체되어 사는 자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네 선생은 이 시대 인생의 보화를 찾으려고 그렇게도 고생하고 다녔다. 산(山)기도를 할 때 바로 이 시대 보화가 무엇인지 알았겠느냐. 그럼 그때 나가서 다 외치지 않았겠느냐. / 이 시대 보화를 찾기 위해 21년 동안 산에서 기도하며 자기 인생을 투자했다. 후에 조금씩 깨닫고, 나 성자가 원하는 대로 조금씩 시대 말씀을 전했다. 그러다가 점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지 내가 깨닫게 해 줬고, 시간이 가고 때가 되는 만큼 새 역사를 알고 이 시대 보화를 알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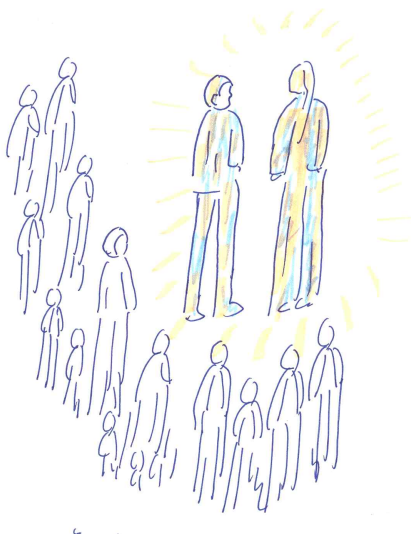
따르는 자들도 그러했다. 처음에는 이 시대 보화가 무엇인지 잘 몰랐고, 자기가 말씀을 듣고 하는 만큼 알게 되었다. 고로 믿었다가 안 믿기도 했다. 시대에 환난이 일어나니, 나 성자는 내 육으로 쓰는 자를 숨겼다. 시대가 불신하니, 내놓고 외쳐도 안 믿었다. 고로 숨기는 것이다. 이때 따르는 자들의 마음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나 기도하여 영적인 자들과 내 본체를 절대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믿고 따랐다.

그러다가 이 시대의 탕감과 형벌 조건을 다 세우고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전환되는 때가 되어, 나 성자가 ‘말씀’을 통해 본체와 본체를 밝히 밝혔다. 고로 너희도 이를 확실히 알고 믿음을 굳건히 했다.

<끝>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전환되는 때’ : 왼팔과 오른팔 서로 전환하는 모습
‘밝히 밝혔다’ : 기본 제스처 하다가 손바닥을 청중을 향해 쪽~ 뻗는다.)



너희는 보화를 발견한 것으로만 기뻐하며 살지 말고, 보화를 발견했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캐내어 써라. 이와 같이 시대 보낸 자의 사명을 숨겨 두고 아는 것으로만 기뻐하며 살지 말고, 저마다 전심을 다해서 자기 마음·정신·생각과 몸과 시간과 자기 소유를 다 투자하여 ‘내가 보낸 자’, 시대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된다.

투자다! 그래야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고 사용하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나 성자가 합당한 자들에게 축복을 준다. 그 축복은 영원한 영의 축복이다. 곧 네 육도 신부로 변화되어 살고, 네 영도 신부로 변화되어 나 성자를 신랑으로 맞는 것이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육은 육으로 맞고, 영은 영으로 맞는 ‘휴거 보화 역사’를 펼쳐 나간다. 육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기 영을 완전히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켜야 된다. 육이 행해야 영이 변화된다.

휴거위한 영



육신에 관한 것



사랑 투자다! 시간 투자다! 마음과 생각 투자다! 젊은 인생 투자다! 투자하여 땅에서 천국 보화를 상속받아라. 그리고 하늘의 천국 보화도 너희 것으로 삼아라. (기본 제스처 힘차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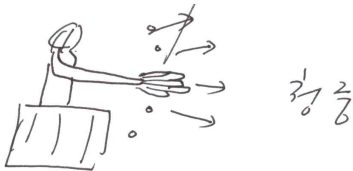
너희 중 합당한 자에게 보화의 세계인 천국을 보여 주어, 그들이 천국을 보고 온 것을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려 보여 주지 않았느냐. 너희 모두에게 다 보여 줄 수 없으니, 합당한 자 몇 사람에게 대표로 보여 주었다. 그러니 그들이 본 것을 100% 믿고 행하여라. <끝>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가 되겠죠. 어떤 사람을 믿으면 사기를 당할 수가 있구요. 어떤 사람을 믿으면 인생 평생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으면 인생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휴거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전해지는 모든 말씀,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주께서 주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것을 믿고 완전하게 믿고 의심없이 오해없이 완전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땅에서 내가 보낸 보화도 너희가 보고 확인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 성자도 확인했으니, 이제 투자하고 행하여 더욱 빛나게 하여라. 성자 주님의 불같은 말씀, 이 말씀 몇 마디 더 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이 교파, 저 교파, 이 종교, 저 종교에서 각종으로 말씀을 전하며 재림을 맞는다 하나, 모르니 못 맞는다. (이 교파, 저 교파, 이 종교, 저 종교 : 한 손 손바닥을 펴서 청중 쪽으로 여기저기 가리킨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나 성자가 보낸 자를 통해 34년 동안 전한 그 말씀은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있다. (손바닥을 위로 펴서 청중을 향해 가리키며 기본 제스처 힘차게!)



너희는 이 시대 ‘성약의 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재림과 휴거의 역사>는 섭리사로 와서 나의 분체를 맞고 나 성자를 맞아 육적 휴거를 이루며 영적 휴거를 기다리는 너희들의 것이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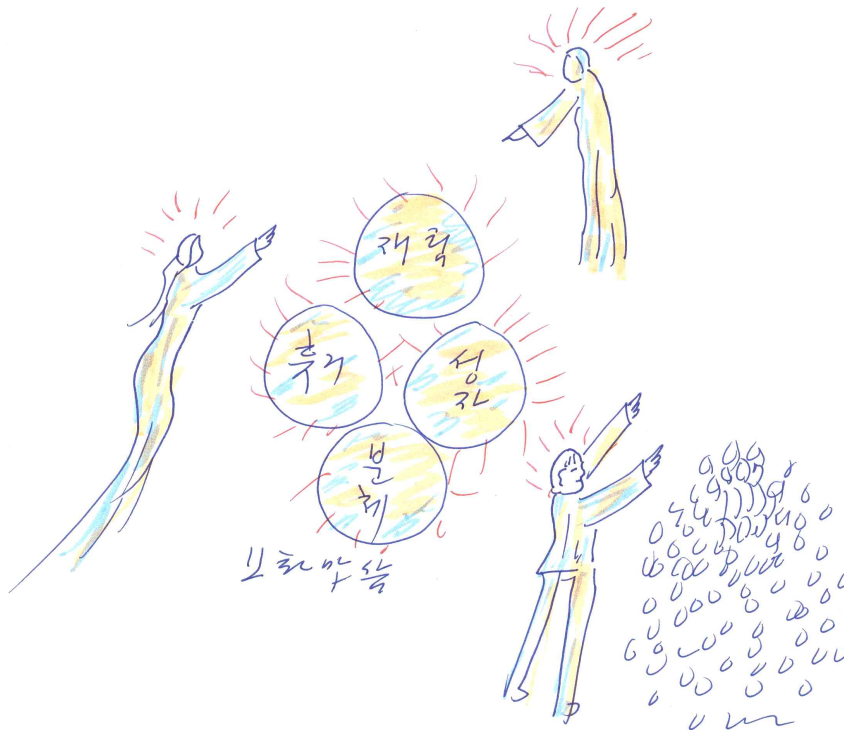
아멘. 여러분들 이 시대 성약의 발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시대 성약발을 차지하게 되었느냐. 바로 시대 보낸 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자 주님을 여러분의 것으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약 이 보화가 감추어진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적 휴거 다음에 이루는 영적 휴거를 이루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교파는 ‘예정’을 핵심으로 외치고, 어떤 교파는 ‘만인 구원’을 핵심으로 외치고, 어떤 교파는 ‘14만 4천 무리 구원’을 핵심으로 외치고, 어떤 교파는 ‘통일’을 핵심으로 외친다. 각자 특성대로 외치지만, 모두 구종교에 속해 있다. 오늘의 마지막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이 시대 최고 보화의 말씀은 지구 창조 이래 처음 선포된 희망의 말씀으로 <재림과 휴거>, <성자 본체와 분체> 말씀이다. 이 말씀은 원자폭탄 같은 위력의 말씀으로서 너희에게 준 능력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외칠 생명력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외치며 전도하자! 이 말씀을 유능하게 외치는 자에게 성령과 함께 성자도 내 분체도 함께한다. (양손으로 기본 제스처 힘차게, 힘차게!!) <끝>

이 시대 원자폭탄 같은 위력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외치고 증거하지 못 하면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역사를 여러분 깨달았는데요. 더 간절히 더 깊이 깨달고 모른다면, 더 배우고 더 행해서 정말 주님의 역사가 맞는 것인지, 정말 이 시대 보낸 자는 성자의 육이며 그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주는 자가 맞는 자인지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성자 본체와 분체의 말씀, 이 시대 전하는 재림과 휴거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자 주님의 말씀인지 꼭 끝까지 확인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분체를 증거하고, 분체를 통해서 나 성자가 이루는 재림의 역사를 증거하고 가르쳐라.



올해 말씀의 빛을 발하여 새 역사의 보화를 자기 것으로 취하여라!

너희를 휴거시키는 성자 주니라. 살롬!

<본문말씀 끝>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침기도)

새시대 이 세상에 숨긴 보화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그 보화를 찾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 평생의 반려자가 있는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인생 성공할 수 있는 그 보화가 이 세상에 숨겨있는가. 또 찾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 이 세상에서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생, 휴거, 구원,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그것을 우리에게 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새시대 세상에 숨겨진 섭리역사를 발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육적휴거와 영적휴거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자폭탄이 한번 떨어지면 남아나는 게 없죠. 주님. 원자폭탄과 같은 이 시대에 떨어진다면 이 마음에 있는 고집과 아집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 이것이 남아있느냐. 주님. 우리가 제대로 외치지 못 했는지가 아닌지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외치기 전에 온전하게 깨닫지 못 하고 이 시대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정말 기쁨을 누리며 ‘아. 내가 천운을 타고 났구나. 사람이 땀을 흘릴 때 그냥 바람만 불어도 땀이 식는데 하물며 천운을 타고 난 자는 얼마나 큰 복이 있을까?’ 그 기쁨을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닌지를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최고의 천운을 타고난 귀한 역사임을 귀한 시대임을 그리고 귀한 인생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깨달아야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행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섭리역사 모든 자들,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여과없이 아낌없이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며 없어지는 봄의 눈같이 꽃같이 사라지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투자하여서

주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천국보화, 성자 보화, 그 분체라는 보화를 우리의 것으로 완전하게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섭리역사 모든 자들의 마음 속에 기쁨과 행복과 성령과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시며, 주님이 불같은 마음으로 말씀과 전도의 해 주님께서 주시는 원자폭탄같은 말씀으로 인해서 귀한 역사, 성령의 역사, 폭발적인 생명의 역사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과 마음을 전환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옵시고, 그 분체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시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맞다는 표적과 이상과 그 온전한 역사를 주님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전체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21일 응답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셨나요? 응답받았습니까? 저는 응답받았는데. 네. 딱 한 가지를 두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응답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도 있구요. 어떤 것은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질 응답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이미 조건이 다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지켜 보시는 그런 기간이 있는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응답의 기도 선생님도 이 기도를 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도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응답을 받으셨고, 응답의 기도 선생님께서는 응답의 기도를 응답을 받고 우리에게 응답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과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합당한 것을 구했다면 주님께서 이미 들어 주셨고, 또 앞으로 깨다 되었을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보화죠.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기도는 유일하게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죠. 자,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합심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모든 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위력은 굉장히 큰 위력을 발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위력도 원자폭탄의 위력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3년 말씀과 전도의 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능력이 다 떨어져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갇히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좋으면 ‘오케이’ 를 해주세요.

21일 기도 같이, 일주일에서 열흘 쉬고 다시 21일 기도, 지금 아주 씨클이 좋아요. 기도 이제 쉬었죠. 2월 4일부터 21일 기도 일주일 쉬고, 3월 4일부터 다시 기도, 일주일 쉬고 다시 21일 기도 매번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가면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계에 계신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네 이제 수료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수료식 남겨놓고 2월 4일 월요일부터 전체 21일 합심기도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2월 24일 주일 수료식날 끝나게 되요. 환상적인 시간입니다. 이번 2월 4일 월요일부터 2월 24일 주일까지 21일 기도의 제목은 사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기도 주간 안에는 2월 6일 바로 기도를 시작한지 이틀만에 사랑의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생명이 탄생되고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수료식 날까지 21일 동안 사랑의 기도, 벌써부터 하고 싶어지죠? 사랑의 기도, 21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 한해 기도함으로 인해서 선생님과 더 소통하고, 성자 주님과도 더 소통하고, 우리끼리도 문제 없이 완벽하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축복해주신 것을 완벽하게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움직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소통, 이 대화의 소통을 절대 놓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드리면서 이 귀한 시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